

祝 辭

우리 협회는 1963년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로 창립한 이래 43년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많은 수난을 겪어왔습니다. 1963년에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창립, 1975년 “대한전기기사협회”로 명칭변경, 1980년 “대한전기협회”로 흡수통합, 1990년 “대한전기기사협회” 재창립 그리고 1996년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재탄생하기까지 너무나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소망이던 우리의 회관을 바라보면서 매우 감격스럽고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노력하신 회원 여러분들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0星霜의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선배들이 협회를 이룩하는데 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줄기차게 기울여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0년대의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시절에 씨를 뿌리는 지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70년대의 대한전기기사협회의 성장기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80년대의 대한전기협회시절의 암흑의 시대에도 굴하지 않는 단합으로 끈질기게 버티고 재기하였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90년대의 대한전기기사협회 재창립을 이루었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불혹의 나이에 들어선 우리 협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초석을 만들어 이어오는 후진들에게 희망과 기쁨으로 승계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희평 회장이 앞장서서 희생적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협회가 대단히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화합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힘을 보태나가야 할 때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격려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협회에 힘을 실어줍니다. 끌고 밀고 발전을 도모합시다. 희망을 불어 넣읍시다. 지혜를 모읍시다. 힘을 모읍시다.

오늘의 기쁨을 다음의 詩를 통하여 표현하자고 합니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까닭은...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까닭은
 암흑의 바다에서
 암초에 부딪치고
 비바람에 흐터지던
 상처받은 빙산
 얼어붙은 가슴
 그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달래주려는 까닭이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까닭은
 원한의 세월
 갈등의 세월
 폭풍의 들판에서
 가시밭에 시달리고
 벼랑에 흐터지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사랑을 채워주려는 까닭이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까닭은
 열린가슴 모두에게 축복주는
 사랑의 빛
 화합의 빛
 희망의 빛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희망을 안겨주려는 까닭이다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까닭은
 두 손을 높이 들어
 모두 함께 노래하자
 사랑의 노래
 화합의 노래
 희망의 노래
 이제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기쁨을 메아리치려는 까닭이다

2006년 11월 28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원로자문위원장(前 부회장) **이재혁**